

‘국악 신인 등용문’ 제32회 임방울국악제 팡파르

내달 6~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명창·일반·학생부 나눠 기량 겨뤄
국내 최대 총상금 1억9000여만원
전야제·장기자랑 등 부대행사 다채

국악 신인들의 등용문인 임방울국악제 막이 오른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를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야제와 본선 무대가 열리는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을 비롯해 8곳에서 예선 무대가 이어진다.

임방울국악제는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 신인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열리는 국악 축제다. 부대행사로 ‘임방울판소리장기자랑’, ‘국창 임방울선생예술 혼모시기’, ‘전야제’ 등이 준비돼 있다.

본 국악제 경연은 학생부, 일반부, 명창부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부는 판소리(고등부·중등부·초등부), 기악(고등부 관악·고등부 현악·중등부), 무용(고등부·중등부) 종목으로 나뉜다. 각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명 등 총 40명의 수상자를 가린다.

일반부는 판소리, 농악,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 병창, 퓨전국악 종목으로 나뉜다.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준우수상, 장려상 등의 시상을 하며

총 28명에게 수상한다.

명창부는 판소리 종목에서 경연이 진행되며, 임방울국악제 대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판소리계의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내는 명창부는 국악계 초미의 관심사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준우수상 등 총 4명의 수상자를 가리며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대상 수상자는 4000만원 상금과 순금 트로피를 거머쥔다. 총상금만 1억9000여만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부대행사로 먼저 9월 6일 오전 9시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순수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잔치인 ‘임방울판소리 장기자랑대회’가 열린다. 판소리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국악 동호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금, 은, 동, 인기상, 장려상 등 입상자 5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내 임방울동상 앞에서 법인 임원, 회원, 유족대표, 유관기관 대표, 유림대표, 언론인, 평가교수, 심사위원, 대통령상 수상자, 문화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국창 임방울선생예술혼모시기’ 행사도 열린다.

같은 날 오후 6시 20분부터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축제 서막을 알리는 전야제가 열린다. 전국 명인, 명창이 참여하며 남상일 국악인의 사회로 진행된다. 특별조정으로 판소리국가무형

유산보유자이며, 한국 최고 아쟁산조의 명인 김일구 선생의 진수를 향유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으로는 지난해 제31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농악 부문 대상을 받은 부안군립농악단(홍석렬 외 8명)이 신명 난 풍물판굿을 연다. 국창 임방울 선생이 애창했던 쑥대머리는 지난해 제31회 임방울국악제에서 최고상인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전체 대상)을 수상한 박자희 명창과, 이현지 명무가 함께 선보인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퓨전국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화팀(조훈화 외 7명)은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신명 난 연주를, 남상일 명창과 임영일 고수는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느 대목’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화려한 소고무, 부채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흥타령, 자진곡자배기, 삼산은반락, 개고리타령, 서울삼각산 등의 민요를 전 출연진과 함께 대미를 장식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 ‘야경’ 스틸컷.

영화로 보는 ‘암스테르담 황금기 권력과 음모’

하정웅미술관 ‘해설이 있는 영화’
내일 화가 램브란트 ‘야경’ 상영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피터 그리너웨이의 영화 ‘야경’을 감상한다. ‘2024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5회차인 이번 강의에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을 다룬 ‘야경’을 함께 보고, 상영 후에는 램브란트의 그림 30여 점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진다.

램브란트는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임은 물론, 서양미술사에서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자의적으로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를 능숙하게 사용한 스타일이 특징이며, 정교한 구도와 인물의 탁월한 묘사로 인간의 감정을 담아냈다.

영화 ‘야경’은 암스테르담 머스켓 민병대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램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17세기 네덜란드 사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업은 예술가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은 램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에 관한 조망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규범이 아웃사이드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정웅미술관’ 예술영화 강의를 진행하는 영화평론가 조대영은 지난 수년간 하정웅미술관 영화상영회를 도맡아 왔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영화 상영회 및 감상회를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원작 소설과 영화를 비교해서 읽고 보는 모임인 ‘20세기소설영화독본’을 16년째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은 저서로는 영화평을 묶어낸 ‘영화, 룬다’가 있다. 다음 행사에서는 폴 세잔(9월 25일), 파블로 피카소(10월 30일) 등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만난다. 하정웅 미술관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 방문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농성동에 위치한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100여년 전 사라진 ‘광주읍성’ 알아볼까?

제13기 역사문화시민대학서 강좌
내달 6일부터 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오는 9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제13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강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13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읍세권 클라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역사의 뒀길로 사라진 광주 읍성을 조명하며 의병활동의 중심인 광주읍성이 지닌 민족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재단이 발간해 큰 호응을 얻은 책 ‘광주읍성 이야기’의 내용을 주제로 강좌를 열게 되었다.

강좌는 △9월 6일 1강 ‘읍세권 분양과 헤치기(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9월 13일 2강 ‘잃어버린 광주읍성을 찾아서(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 △9월 20일 3강 ‘낮보다 빛나는 읍세권의 밤(전득염 전남대 명예교수)’ △9월 27일 4강 ‘한시 속 읍세권 감성(박명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제12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강좌의 모습.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희 전남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9월 28일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과 함께 대구형무소, 달성공원, 청라언덕, 국제보상운동기념관 등 대구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도 병행한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전화(062-234-2727) 또는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25명까지 모집한다. 수강료는 3만원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역사문화시민대학은 기후, 질병, 음식, 여행, 사랑, 풍자와 해학 등을 주제로 한 독특하고 깊이 있는 강좌로 지역민의 큰 호평을 받아왔다.

도선인 기자

광주연극배우협회 정기공연 개최

29일부터 미로센터 미로극장
‘나무는 서서 죽는다’ 등 2편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시지회는 올해 정기공연을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광주 미로센터 미로극장 2관에서 선보인다.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시지회는 2007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정기공연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두 편의 작품을 공연한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공연하는 알레한드로 까소나 작, 최재성 연출의 ‘나무는 서서 죽는다’는 마음을 다친 사람을 치유해주는 ‘영혼의 집’에 대한 이야기다. 작품은 가슴 아픈 현실과 예술적 환상을 조화시켜 관객들에게 파스한 감동을 준다. 광주 연극배우들이 전하는 파스한 감동과 배우들 간 호흡이 기대를 모은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공연하는 아서 밀러 작, 반무섭 연출의 ‘모두가 내 아들’은 결함이 있는 전투기 부품을 납품한 공장

소유주와 그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준다. 작품은 이기적인 욕심과 거짓으로 외면해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직면하는 켈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에 진지한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 연극배우들이 표현하는 인물들 간의 팽팽한 심리전이 기대를 모은다.

관람 예약 신청은 구글 폼(나무 <https://naver.me/GSDUZtpY>), (아들 <https://naver.me/F6lxUnqD>) 또는 전화(010-6838-1423)로 가능하다. 인스타 계정(gj.actor)에서 공연 홍보를 위해 제작된 배우 인터뷰 및 캐릭터 영상도 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